

2026년 05월 월간 일자리 통계

경기도 4050세대 인구 및 가구 구조
경기도 4050세대 경제활동 및 고용 동향
경기도 4050세대 일자리 구조와 질
경기도 4050세대 노동시장



Contents



요약

1	5월 월간 일자리 통계 요약	05
---	-----------------	----

I

경기도 4050세대 인구 및 가구 구조

1	주민등록인구	07
2	가구주 및 1인 가구	08
3	가계 소득	09

II

경기도 4050세대 경제활동 및 고용 동향

1	고용률 및 취업자	11
2	실업률 및 실업자	12
3	비경제활동인구	13
4	‘쉬었음’ 인구 및 비구직사유	14

Contents



III

경기도 4050세대 일자리 구조와 질

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17
2	고용보험 피보험자	18
3	퇴직사유	20
4	실업급여 신청자수	21

IV

경기도 4050세대 노동시장

1	구직건수·취업건수	23
2	직종별 구직건수	24
3	선호하는 직종 구인배수	25
4	직종별 취업건수	26

요약

1

5월 월간 일자리 통계 요약



5월 월간 일자리 통계 요약

▶ 경기도 4050세대 인구 및 가구 구조

- (현황) '26년 4월, 경기도 4050세대 주민등록인구는 약 453만명이며 전국 4050세대의 28.1%. 또한, 경기도 405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는 249만 가구로 경기도 전체 가구의 44.5%
- (추이) 전국 대비 경기도 4050세대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증가 추세고, 경기도 전체 가구 대비 경기도 405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 비중은 감소 추세

▶ 경기도 4050세대 경제활동 및 고용 동향

- (현황)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 고용률은 79.8%, 실업률은 1.9%. 경기도 50대 고용률은 77.9%, 실업률은 2.0%.
- (추이) 경기도 40대와 50대 고용률은 높낮이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경기도 40대와 50대 실업률은 전국과 유사한 흐름 속에서 전국보다 높은 실업률 추이가 나타남.

▶ 경기도 4050세대 일자리 구조와 질

- (현황)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36.1%로 가장 크고, 직종분류별로 살펴보면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27.8%로 가장 큼.
- (시사점) 실업급여 신청자수의 격차(50대-40대) 추이를 보면, 4월~11월에는 1,000명 안팎의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나, 매년 1월 격차가 3,000명 이상으로 상승함. 이는, 경기도 50대가 연말·연초 계약 종료 충격이 큰 단기 계약성 일자리에 더 많이 포진해 있음을 시사함.

▶ 경기도 4050세대 노동시장

- (현황) 경기도 40대와 50대 직종별 취업비중 격차(50대-40대)를 살펴보면, 경기도 50대는 40대 대비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에서 10.6%p의 취업비중 우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3%p, '음식 서비스직' 2.1%p 취업 우위가 나타남. 반면, 경기도 40대는 50대 대비 '경영·행정·사무직'에서 14.6%p의 취업 우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방송직' 1.9%p,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0%p 취업 우위가 나타남.
- (시사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일자리 사업이 4050세대로 묶여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표상 40대와 50대의 주력 일자리는 명확한 구조적 차이를 보임.

I

경기도 4050세대 인구 및 가구 구조



- 1 주민등록인구
- 2 가구주 및 1인 가구
- 3 가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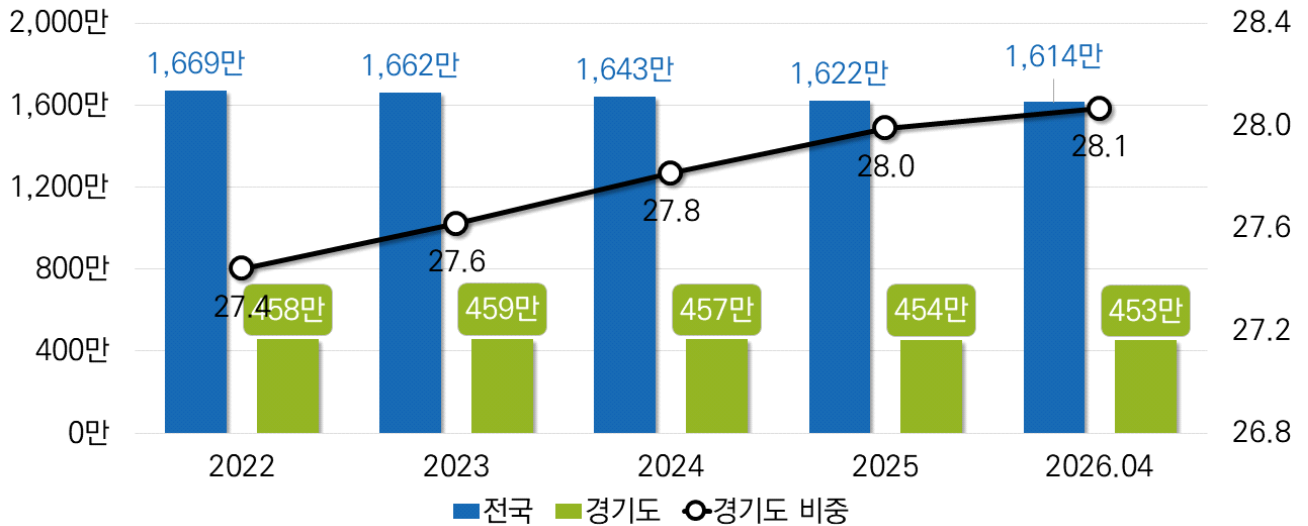
1-1 전국 및 경기도 4050세대 주민등록인구 현황

전국 4050세대 주민등록인구는 약 1,614만명, 경기도 4050세대 주민등록인구는 약 453만명

- (현황) '26년 4월, 경기도 4050세대 주민등록인구는 4,529,548명으로 전국(16,137,443명)의 28.1% 차지.
- (추이) 전국과 경기도의 4050세대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작음.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단위: 만명)

전국 및 경기도 4050세대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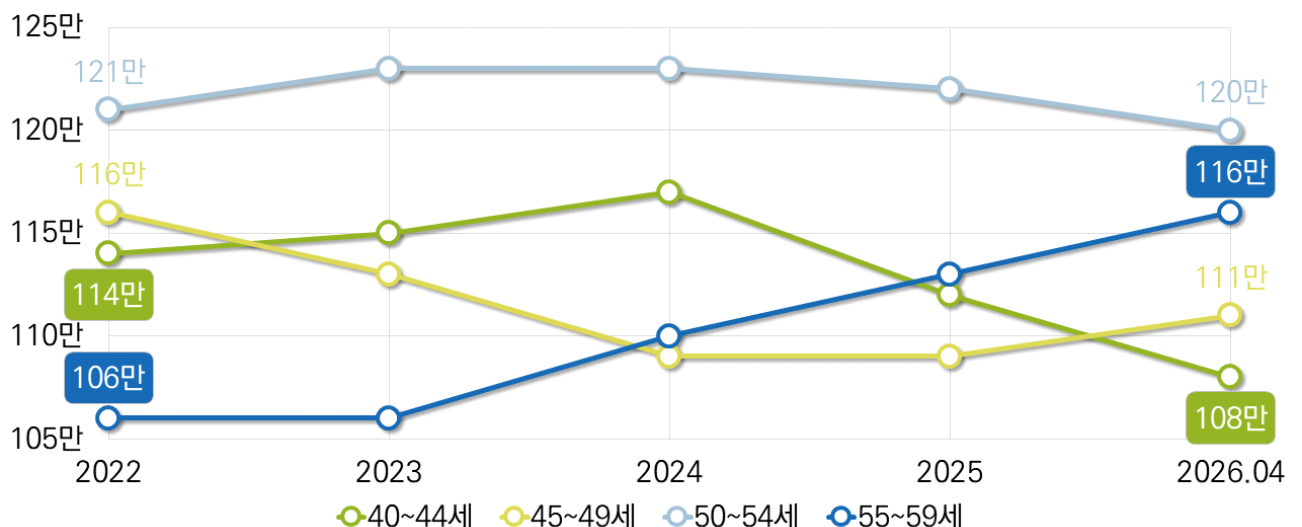
1-2 경기도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경기도 40대 인구의 감소, 55~59세의 증가

- (현황) '26년 4월, 경기도 내 4050세대 연령구간별 주민등록인구는 50~54세가 1,196,380명으로 가장 많음.
- (추이) 55~59세 주민등록인구는 '22년 1,060,874명에서 '26년 4월 1,159,589명으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우상향 패턴이 나타남.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 단위: 만명)

경기도 4050세대 연령구간별 주민등록인구



☞ (시사점)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55~59세 구간은 향후 5년 내에 전부 60대 초반 고령 노동시장으로 강제 진입하게 되며, 이들이 기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후 노인 일자리 시장으로 쏟아질 경우, 생계형 단순 노무 직종의 쏠림과 고용 안전망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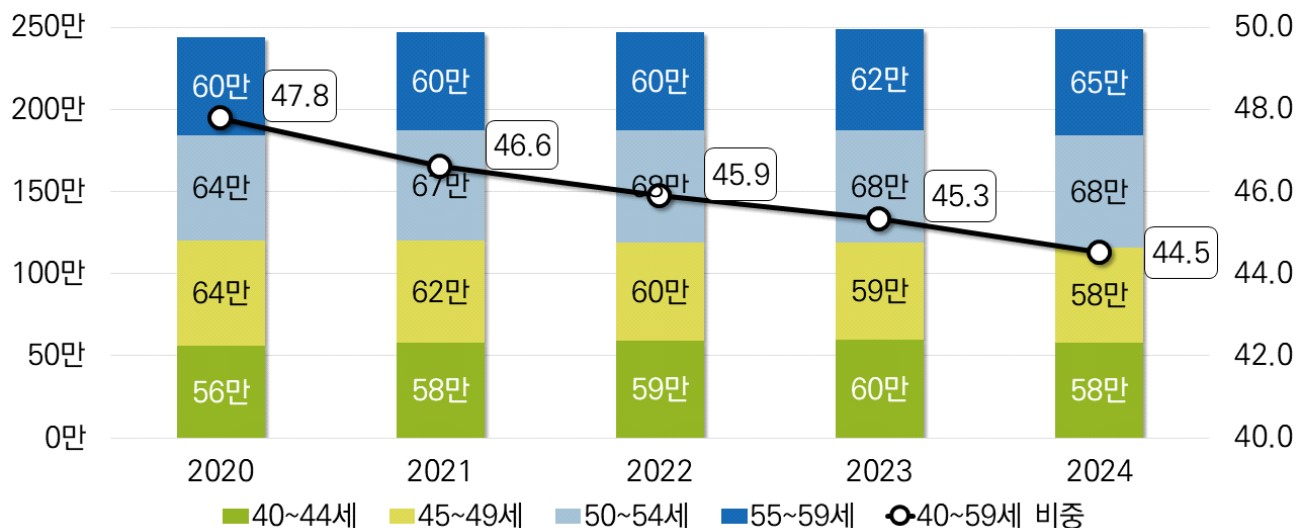
2-1 경기도 4050세대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

경기도 전체 가구 중 4050세대 가구주 비중은 5년 연속 하락, 45~49세 가구주 5년 연속 감소

- (현황) '24년, 경기도 총 가구수는 5,592,072가구, 이 중 4050세대 가구주는 2,489,516가구로 전체의 44.5%.
- (추이) 경기도 전체 가구주 대비 4050세대 가구주 비중은 5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45~49세 가구주는 '20년 646,080가구에서 '24년 579,324가구로 8.9% 감소

(출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 단위: 만 가구, %)

경기도 4050세대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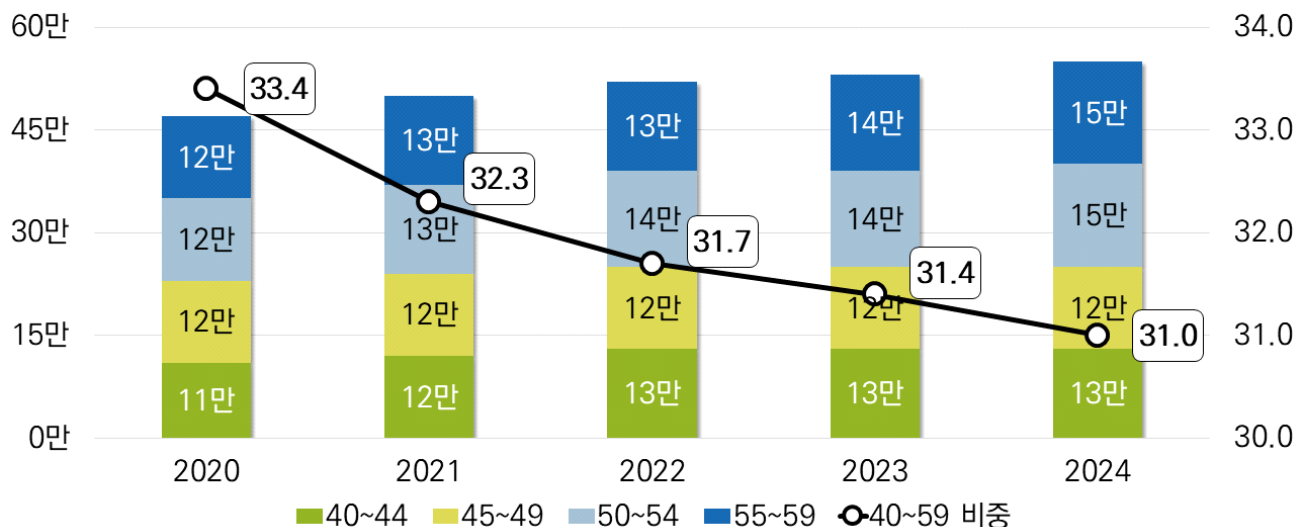
2-2 경기도 4050세대 연령구간별 1인가구

경기도 4050세대 1인 가구수는 5년 연속 증가, 비중은 5년 연속 하락

- (현황) '24년, 경기도 4050세대 1인 가구는 550,762가구로 경기도 전체 1인 가구(1,775,259)의 31.0%.
- (추이) 경기도 4050세대 1인 가구는 '20년 468,991가구에서 '24년 550,762가구로 5개년 동안 17.4% 증가하였으나, 경기도 전체 1인 가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중은 '22년 33.4%에서 '24년 31.0%로 2.4%p 감소

(출처: 「인구총조사」, 국가데이터처 / 단위: 만 가구, %)

경기도 4050세대 연령구간별 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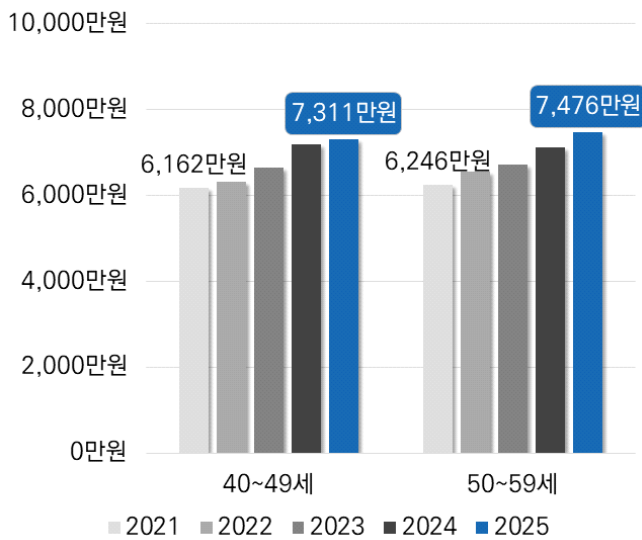
(시사점) 경기도 4050세대 1인 가구의 팽창은 고용 한파 발생 시, 고용 안전망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 생계 취약계층의 모수가 확대되었음을 의미.

4050세대 소득 성장세 속 만성적인 원리금 상환 부담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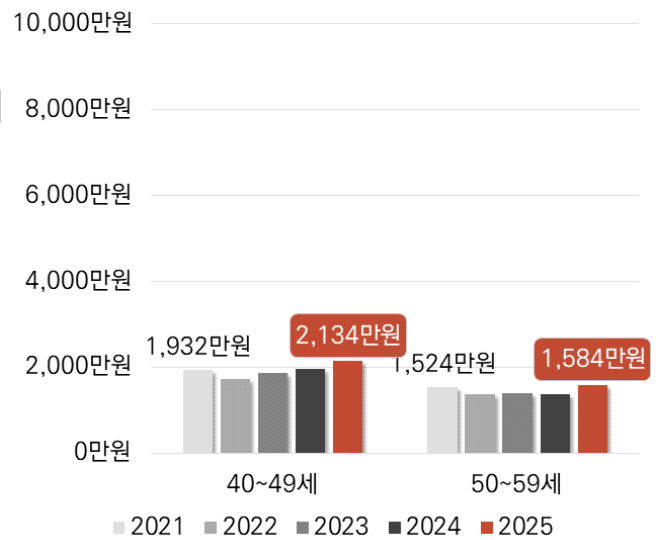
- **(현황)** '25년 조사 기준,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7,476만원을 벌고, 1,584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여, 원리금 상환 후 처분가능소득은 5,892만원임.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7,311만원이고, 2,134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지출하여, 원리금 상환 후 처분가능소득은 5,177만원임.
- **(추이)** '25년 조사 기준, 40대 가구의 원리금 상환 후 처분가능소득이 5,177만원으로 전년도 조사(5,238만원) 대비 61만원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반면, 50대 가구의 원리금 상환 후 가처분소득은 4개년 평균 약 293만원씩 지속적 증가.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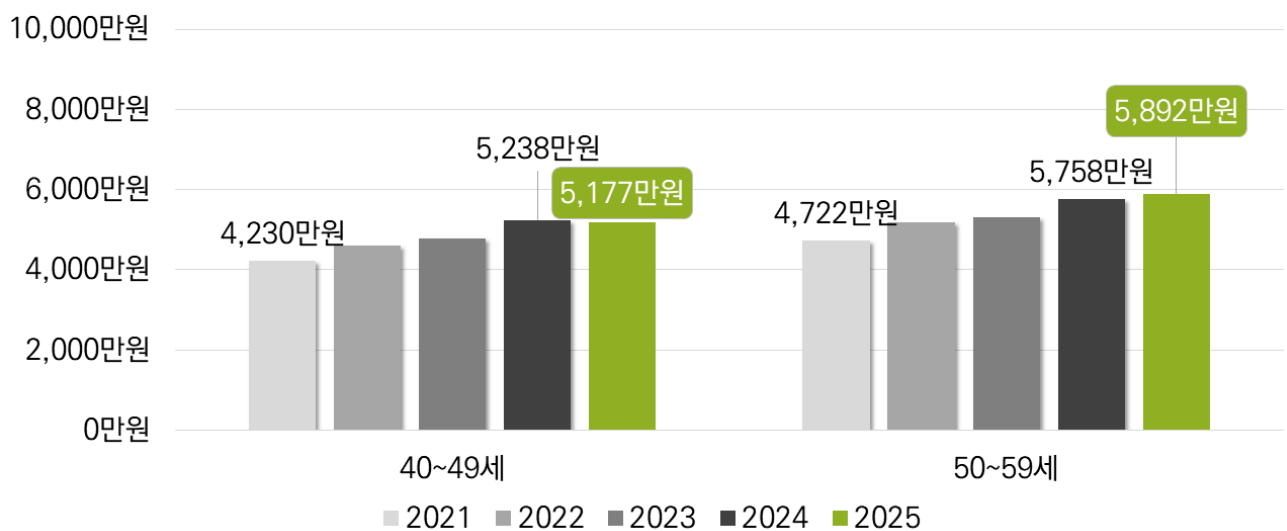
전국 4050세대 처분가능소득(전년도)



전국 4050세대 원리금상환액(전년도)



전국 4050세대 원리금 상환 후 처분가능소득(전년도)



II

경기도 4050세대 경제활동 및 고용 동향



1 고용률 및 취업자

2 실업률 및 실업자

3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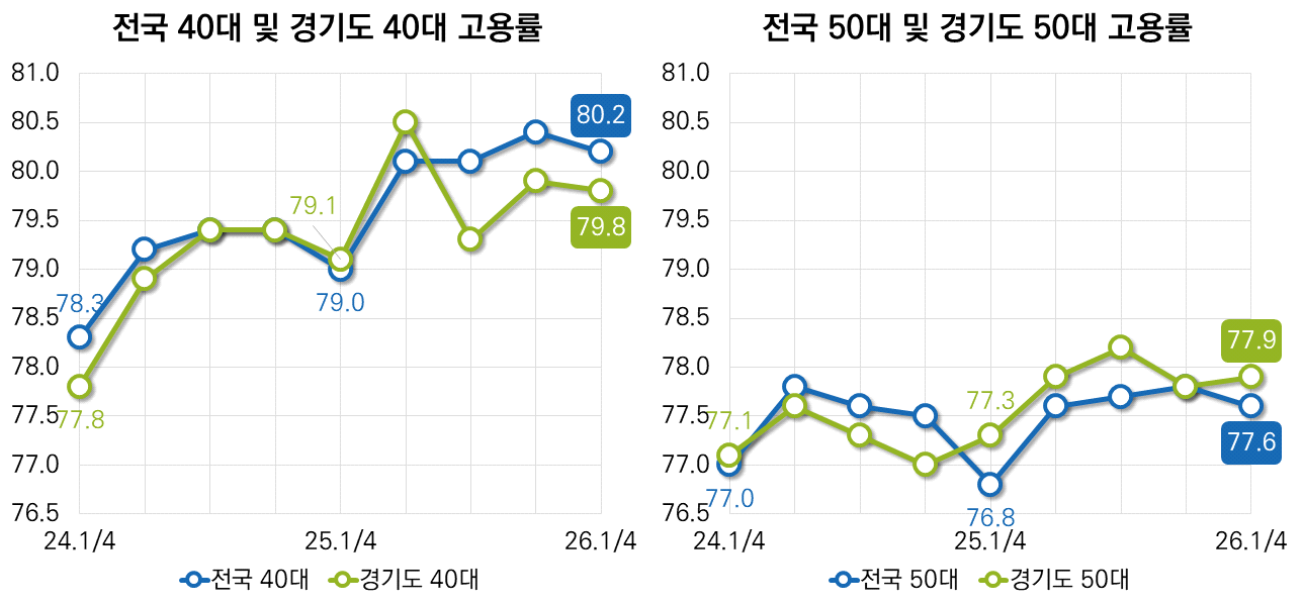
4 '쉬었음' 인구 및 비구직사유

1-1 전국 및 경기도 4050세대 고용률

'24년 1분기 대비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50대 고용률 상승(40대: 2.0%p, 50대: 0.8%p)

- (현황)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 고용률은 79.8%로 전국(80.2%) 대비 0.4%p 낮고, 경기도 50대 고용률은 77.9%로 전국(77.6%) 대비 0.3%p 높음.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추이) '24년 1분기부터 '26년 1분기까지 높낮이의 차이는 있으나, 40대와 50대 우상향 패턴을 보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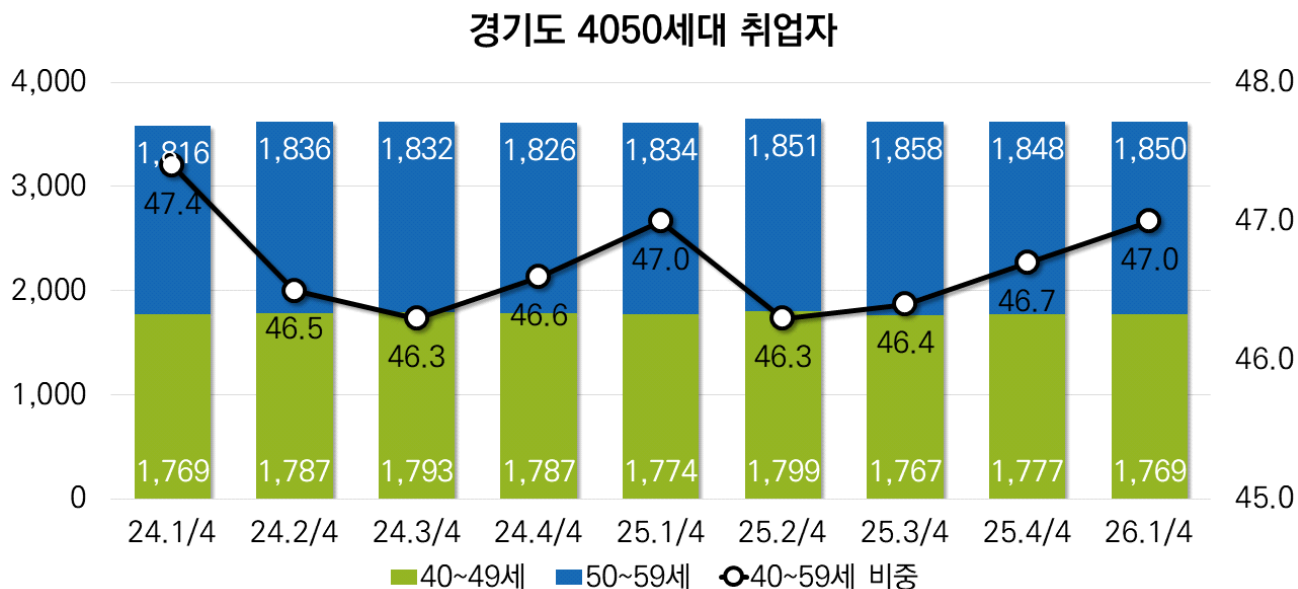


1-2 경기도 4050세대 취업자

'24년 1분기 대비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 취업자수는 정체, 50대 취업자수는 증가

- (현황) '26년 1분기, 경기도 4050세대 취업자는 361만 9천명으로 경기도 전체 취업자(769만 8천명)의 47.0%.
- (추이) '24년 1분기 대비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 취업자는 변화가 없고, 경기도 50대 취업자는 3만 4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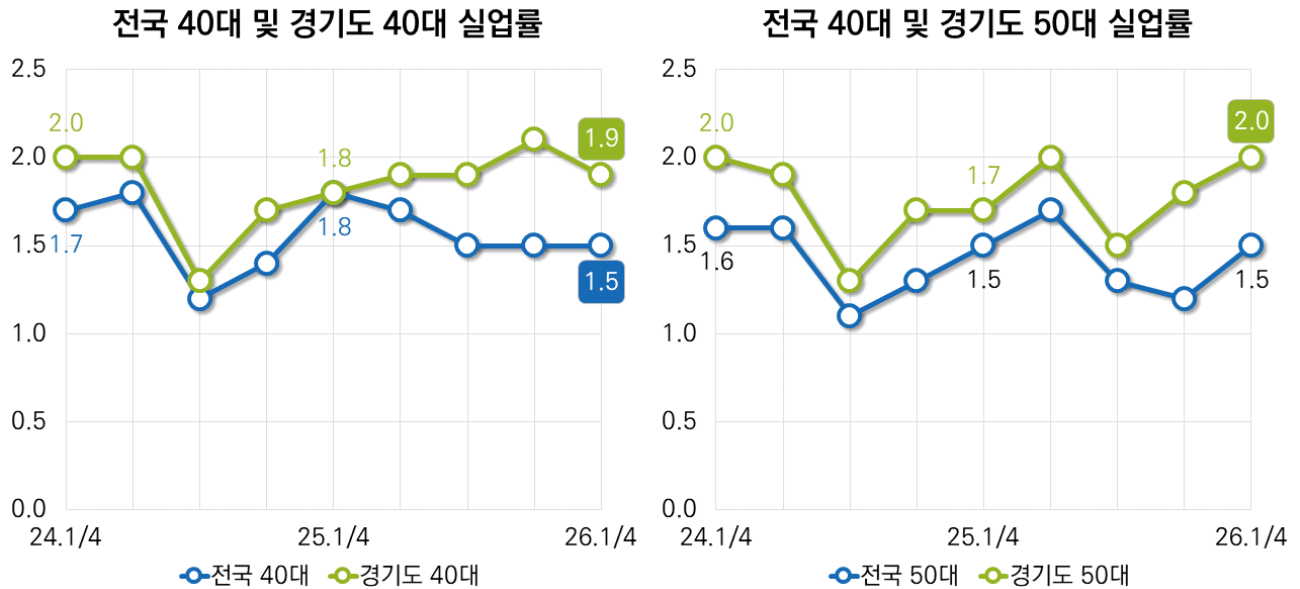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 단위: 천명)



(사시점) 40대 고용률의 우상향 흐름(II-1-1)과 취업자 정체(II-1-2)가 공존하는 모습은 40대 인구 자체의 수축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가능성 존재. 이에, 고용률 상승이 일자리 시장의 호황으로 오독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선 항상 인구와 취업자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노력 필요.

- '24년 1분기 대비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 실업률은 0.1%p 소폭 하락, 50대 실업률은 변동 없음
- (현황)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 실업률은 1.9%이며 전국(1.5%) 대비 0.4%p 높음, 50대 실업률은 2.0%로 전국(1.5%) 대비 0.5%p 높음.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추이) '24년 1분기부터 '26년 1분기까지 경기도 4050세대 실업률은 전국보다 높은 실업률 유지 추이가 나타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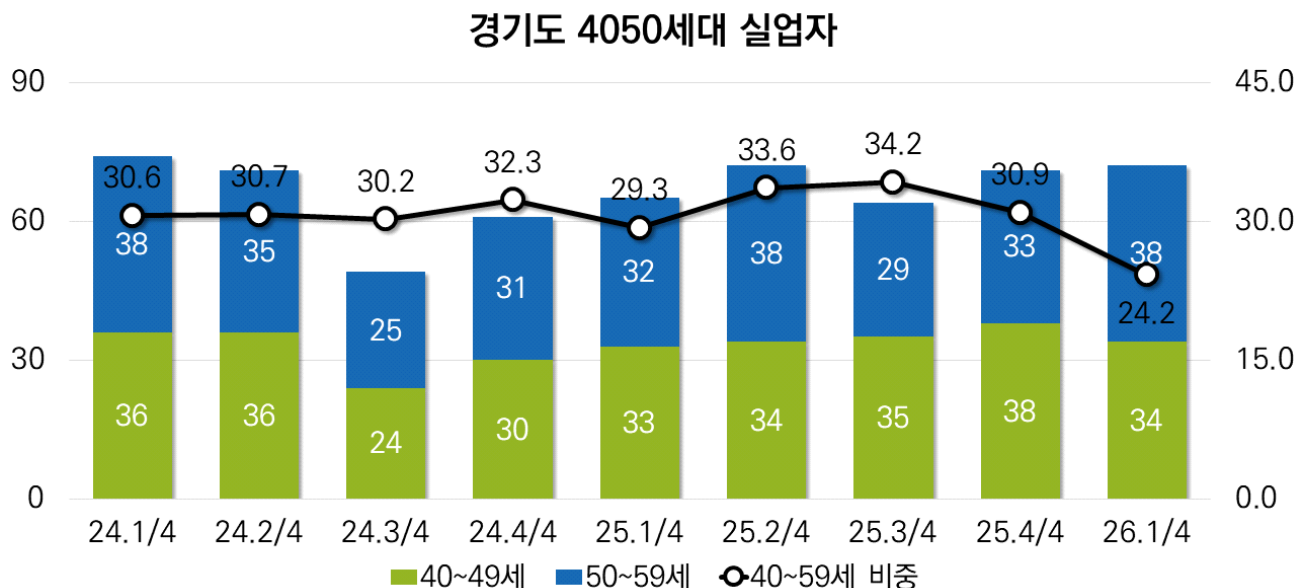


(시사점) 전국과 경기도 4050세대 실업률의 유사한 흐름은 경기도 4050세대의 일자리 생태계가 경기도 고유의 특성보다는 전국 단위의 거시적인 경기 변동, 전국 공통의 계절적 요인에 종속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2-2 경기도 4050세대 실업자

- '24년 1분기 대비 '26년 1분기, 경기도 40대 실업자는 소폭 감소, 50대 실업자는 정체.
- (현황) '26년 1분기, 경기도 40~49세 실업자 수는 3만 4천명이며, 경기도 50~59세 실업자 수는 3만 8천명. 경기도 전체 실업자 대비 40~59세 비중은 24.2%
 - (추이) 40~59세 비중은 '24년 1분기 대비 '26년 1분기 6.4%p 하락하였으나, 실업자 총량은 대등한 수준을 유지.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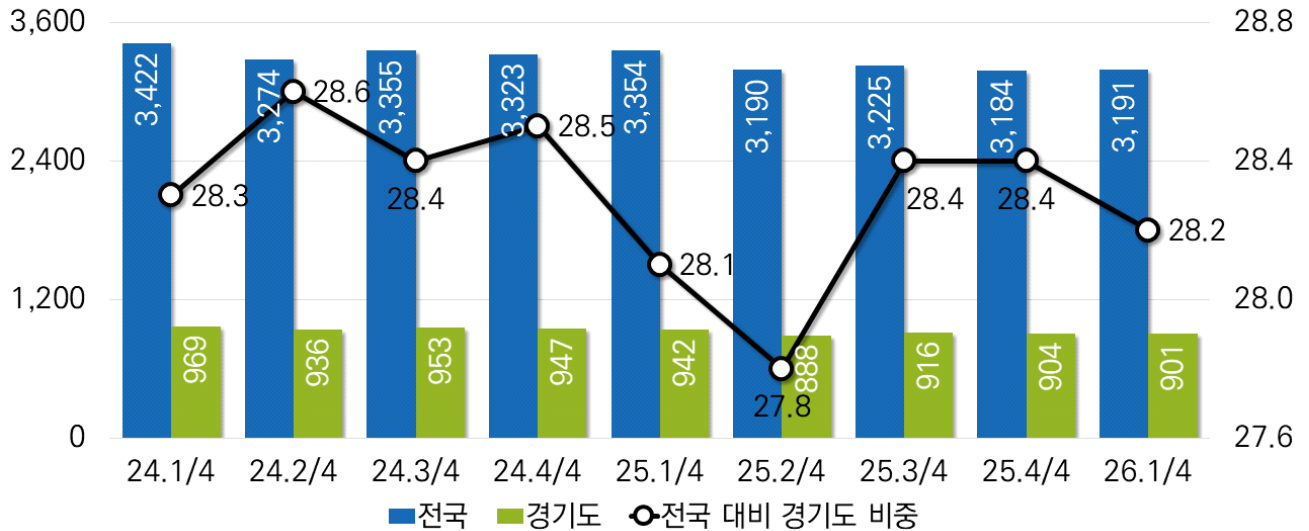


전국 및 경기도 405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동반 감소세

- (현황) '26년 1분기, 4050세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국이 342만 2천명이고, 경기도가 90만 1천명이며, 전국 대비 경기도 비중은 28.2%
- (추이) 전국과 경기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동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비중은 28% 내외에서 유지.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 단위: 천명, %)

전국 및 경기도 4050세대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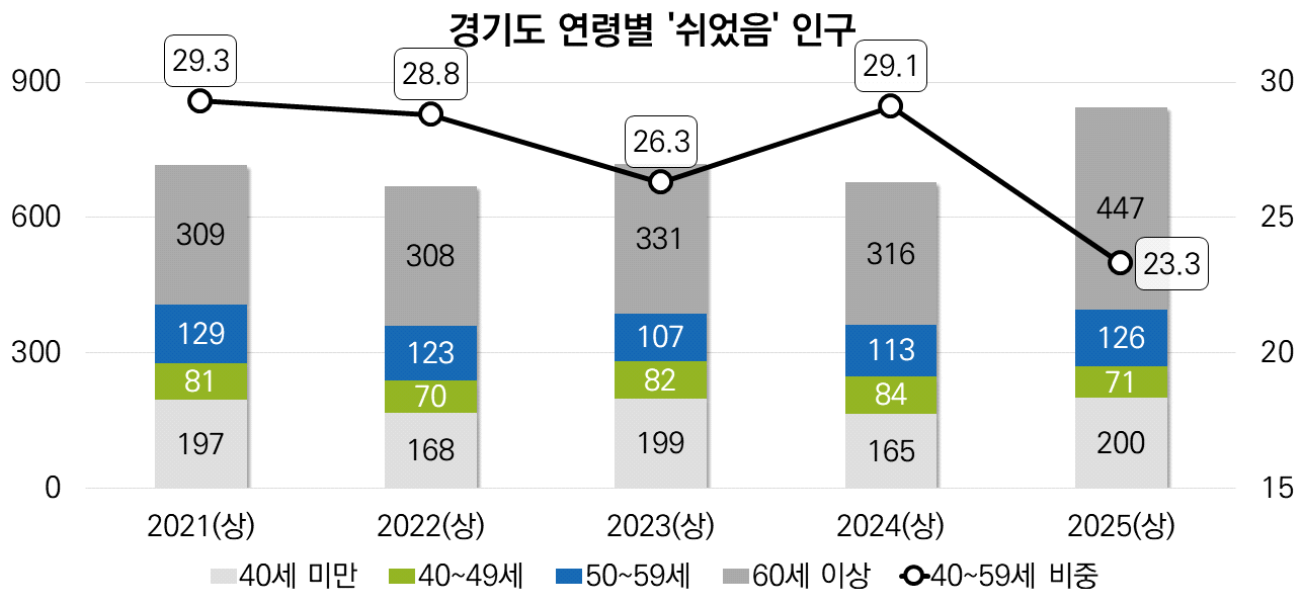
☞ (시사점) 경기도 4050세대의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앞서 살펴본 취업자 수의 현상 유지 현상과 함께 살펴볼 때,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아닌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추정됨. 다만, 구직자들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업 및 구직활동 전선에 정체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함. 만약,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자가 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을 시사함.

4-1 경기도 연령별 '쉬었음' 인구

'21년(상) 대비 '25년(상), 경기도 4050세대 '쉬었음' 인구 감소 및 비중 축소

- (현황) '25년(상), 경기도 40~49세 '쉬었음' 인구는 7만 1천명이고, 50~59세 '쉬었음' 인구는 12만 6천명이며, 경기도 전체 '쉬었음' 인구 대비 4050세대 비중은 23.3%
- (추이) 경기도 50~59세 '쉬었음' 인구는 '23년(상) 저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 2년 연속 증가세가 나타남.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처 /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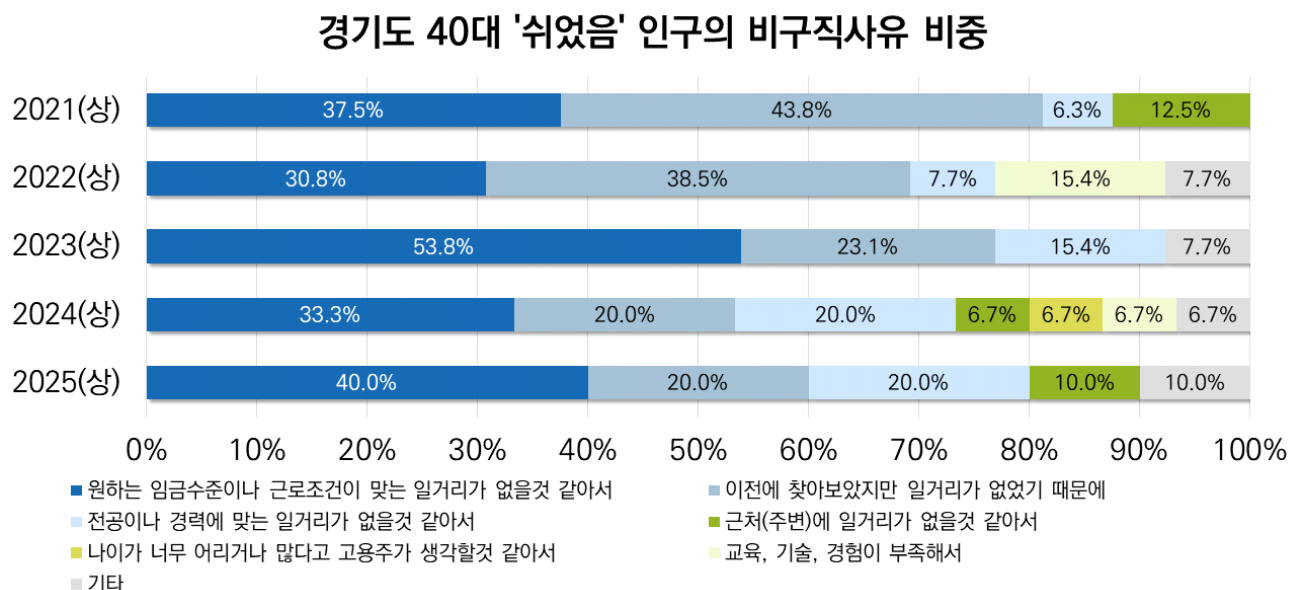
(시사점) 경기도 4050세대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고용환경 개선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음. 왜냐하면, 50~59세는 적극적 구직을 포기하고 '쉬었음' 상태로 있는 사람이 최근 2년간 증가하고 있음. 또한, 타 연령층의 '쉬었음' 인구 팽창으로 인한 통계적 착시로 볼 수 있음.

4-2 경기도 40대 '쉬었음' 인구의 비구직사유 비중

'25년(상), 경기도 40대 '쉬었음' 인구의 비구직사유 중 '임금·근로조건 불일치'가 40.0%로 최대 비중

- (추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는 '21년(상) 43.8%에서 '25년(상) 20.0%로 감소한 반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는 '21년(상) 37.5%에서 '25년(상) 40.0%로 상승하며 최대 비중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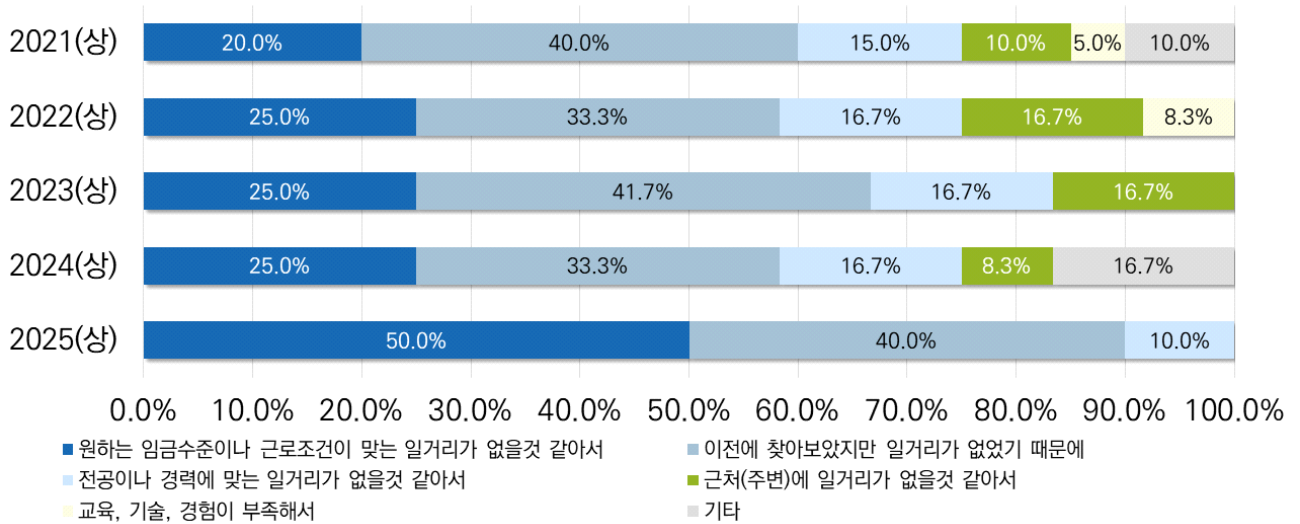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처 / 단위: %)



- '25년(상), 경기도 50대 '쉬었음' 인구의 비구직사유 중 '임금·근로조건 불일치'가 50.0%로 최대 비중
- (추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는 '21년(상) 20.0%에서 '25년(상) 50.0%로 증가하며 최대 비중.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는 '21년(상) 40.0%에서 중간에 등락은 있었으나 '25년(상) 40.0%로 유지.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처 / 단위: %)

경기도 50대 '쉬었음' 인구의 비구직사유 비중



☞ (시사점) '25년(상) 기준으로 40대와 50대 모두 구직을 단념하고 쉬게 만드는 최대 사유는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임. 또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사유는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같이 살펴볼 때, 4050세대에게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요처에 안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III

경기도 4050세대 일자리 구조와 질



- 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2 고용보험 피보험자
- 3 퇴직사유
- 4 실업급여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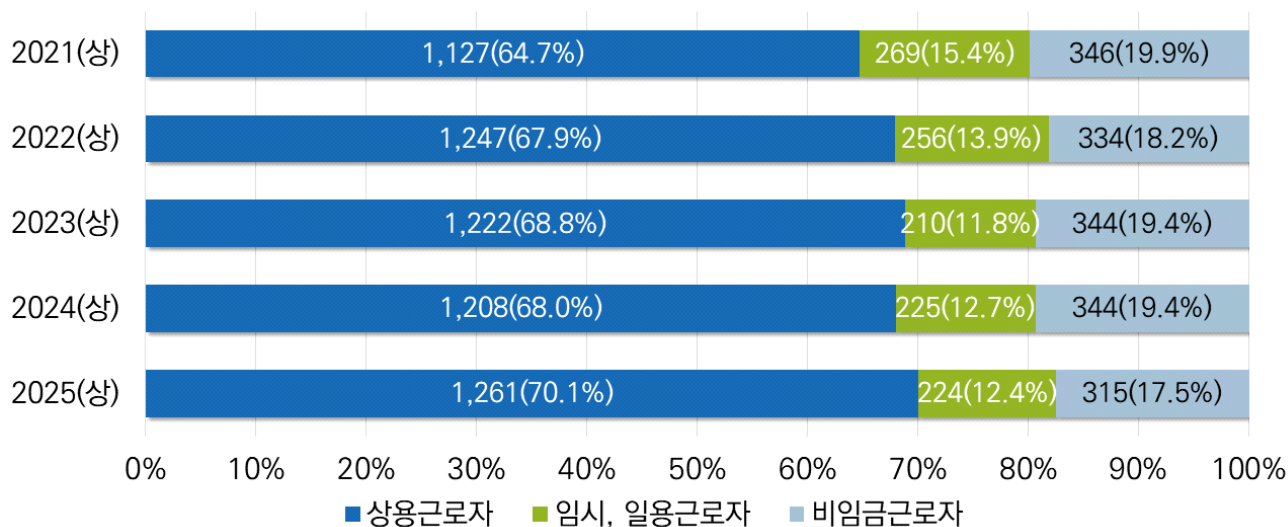
1-1 경기도 40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5년(상) 경기도 40대 '상용근로자' 126만 1천명이며, 전체 경기도 40대 취업자 중 70.1%

- (현황) '25년(상) 기준, 전체 경기도 40대 취업자(약 180만명) 중 '상용근로자' 70.1%, '임시, 일용근로자' 12.4%, '비임금근로자' 17.5% 차지.
- (추이) 경기도 40대 '상용근로자'는 '21년(상) 112만 7천명(64.7%)에서 126만 1천명(70.1%)으로 5.4%p 증가. '임시,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수와 비중에 있어 모두 감소.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처 / 단위: 천명, %)

경기도 40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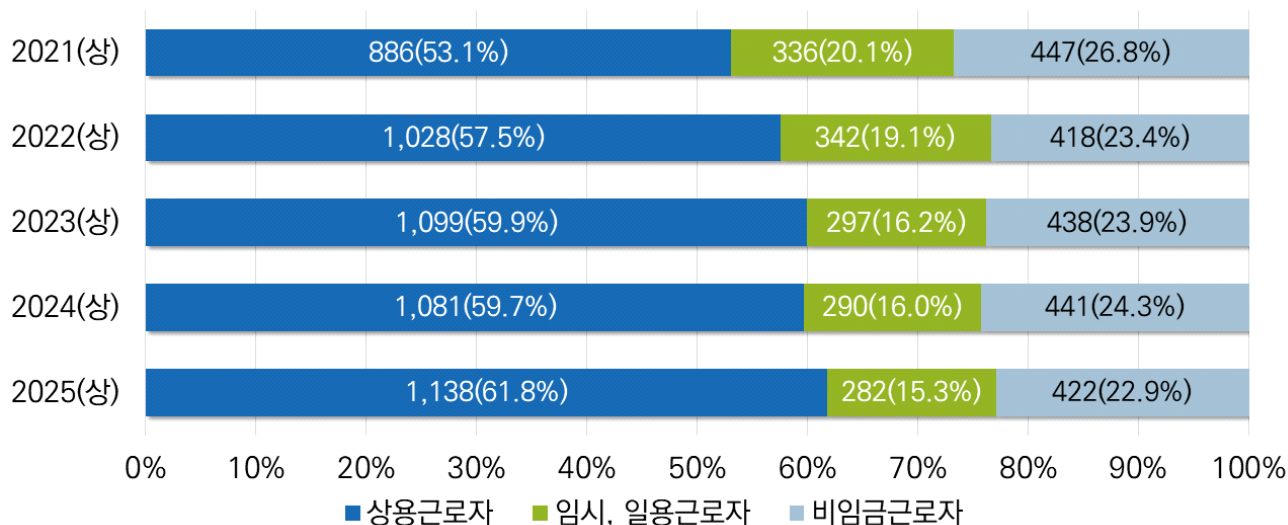
1-2 경기도 50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5년(상) 경기도 50대 '상용근로자'는 113만 8천명이며, 전체 경기도 50대 취업자 중 61.8%

- (현황) '25년(상) 기준, 전체 경기도 50대 취업자(약 184만 2천명) 중 '상용근로자' 61.8%, '임시, 일용근로자' 15.3%, '비임금근로자' 22.9% 차지.
- (추이) 경기도 50대 '상용근로자'는 '21년(상) 88만 6천명(53.1%)에서 '25년(상) 113만 8천명(61.8%)으로 8.7%p 증가. '임시,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수와 비중에 있어 모두 감소.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처 / 단위: 천명, %)

경기도 50대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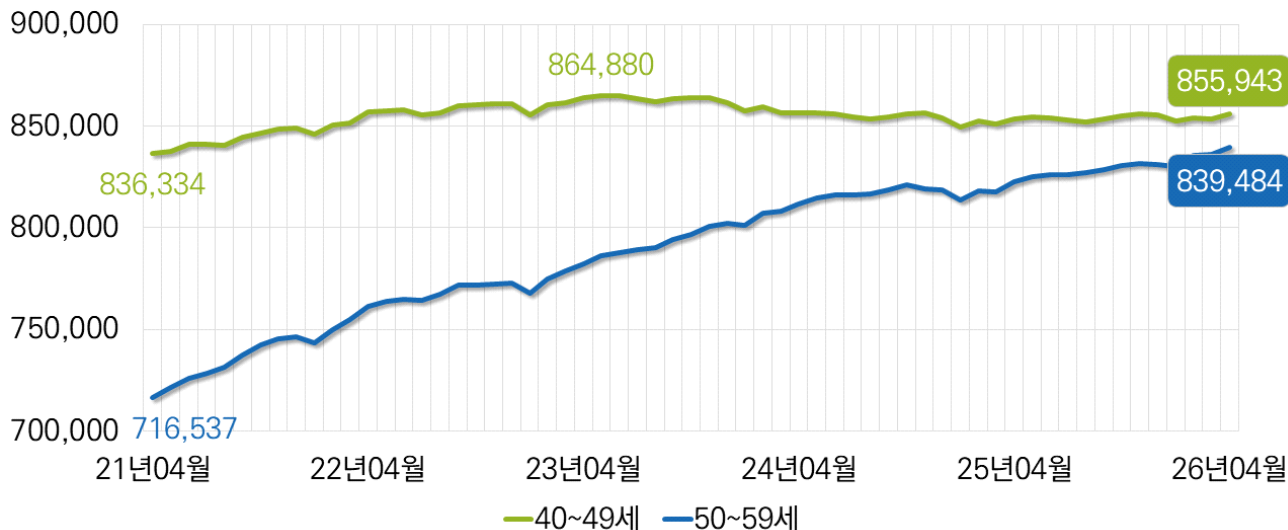


2-1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6년 4월, 경기도 4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약 85만명, 5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약 84만명
- (추이) 경기도 4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1년 4월 836,334명에서 '23년 5월(864,880명)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향 국면으로 전환되어 최근 85만명대 박스권에서 정체. 5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1년 4월 716,537명에서 '26년 4월 839,484명으로 약 17.2% 증가하며 최고점을 경신.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월별 피보험자현황) / 단위: 명)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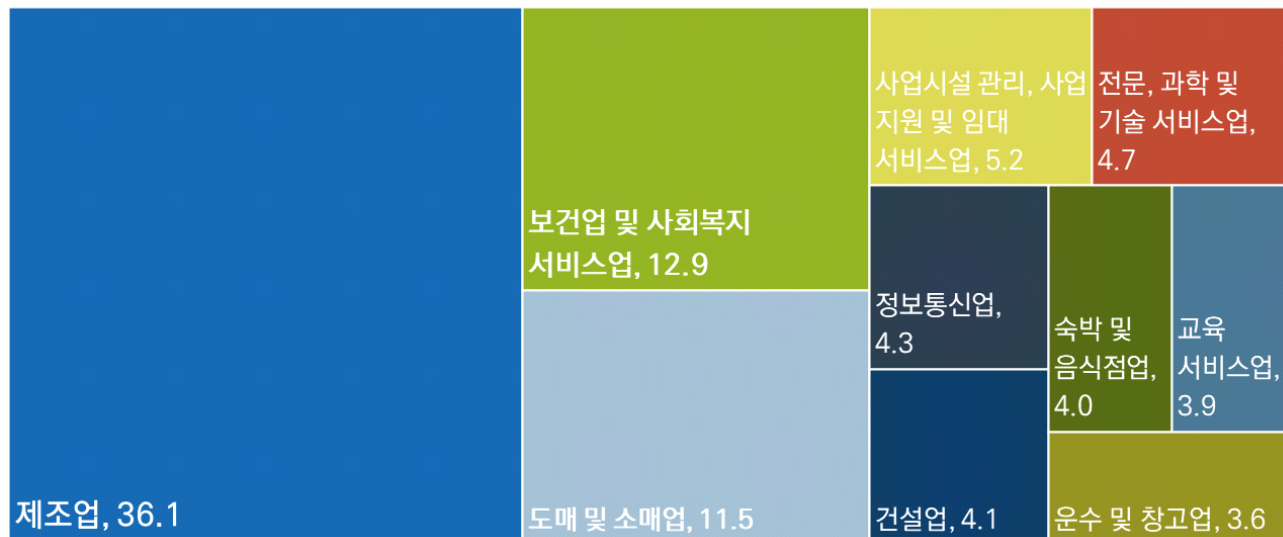


2-2 산업대분류별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제조업' 비중이 36.1%로 최고
- (현황) '21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60개월 평균으로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6.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9%), '도매 및 소매업'(11.5%) 순.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월별 피보험자현황) / 단위: %)

산업대분류별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To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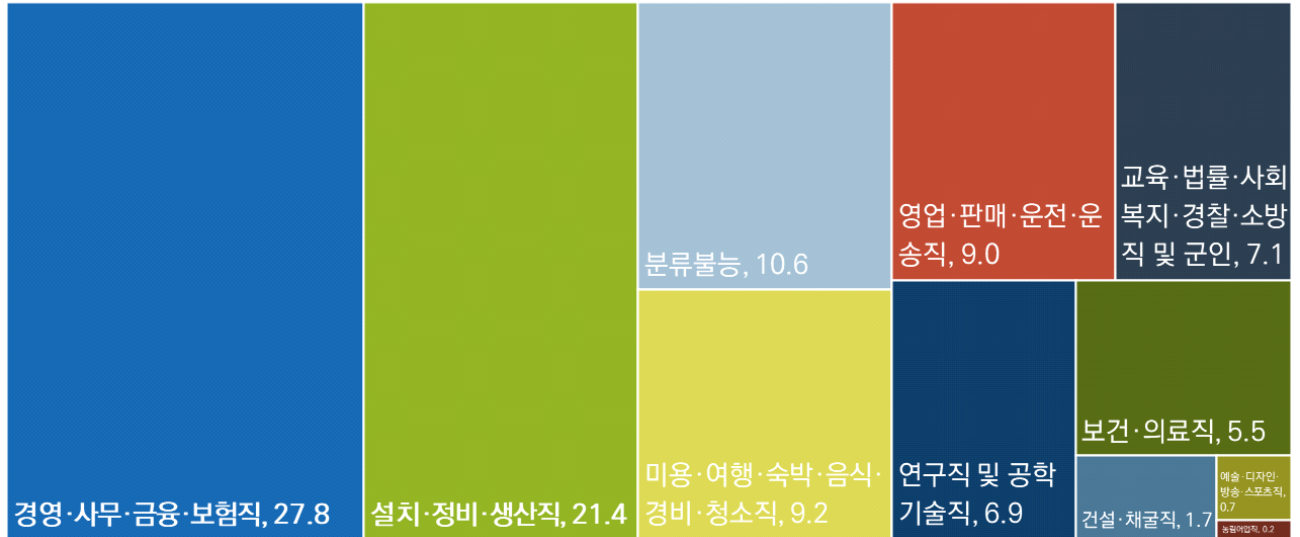
(사시점)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의 36.1%가 '제조업' 단일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기도 4050세대 생계망이 거시경제적 제조업황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함. 중동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환율 및 고유가 등으로 경기도 내 제조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경기도 4050세대의 일자리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음.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27.8%로 최고

- (현황) '21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60개월 평균으로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 27.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설치·정비·생산직'(2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9.2%) 순.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월별 피보험자현황) / 단위: %)

직종대분류별 경기도 4050세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중



☞ (시사점) 비중이 가장 큰 '경영·사무·금융·보험직'과 4050세대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관리자급 화이트칼라 인력으로 추정됨. 그러나 '화이트칼라' 직종은 연공급제, 연령 장벽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중간에 고용 이탈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진입이 어려운 직종임. 따라서, 경기도 노동시장 밖으로 무기력하게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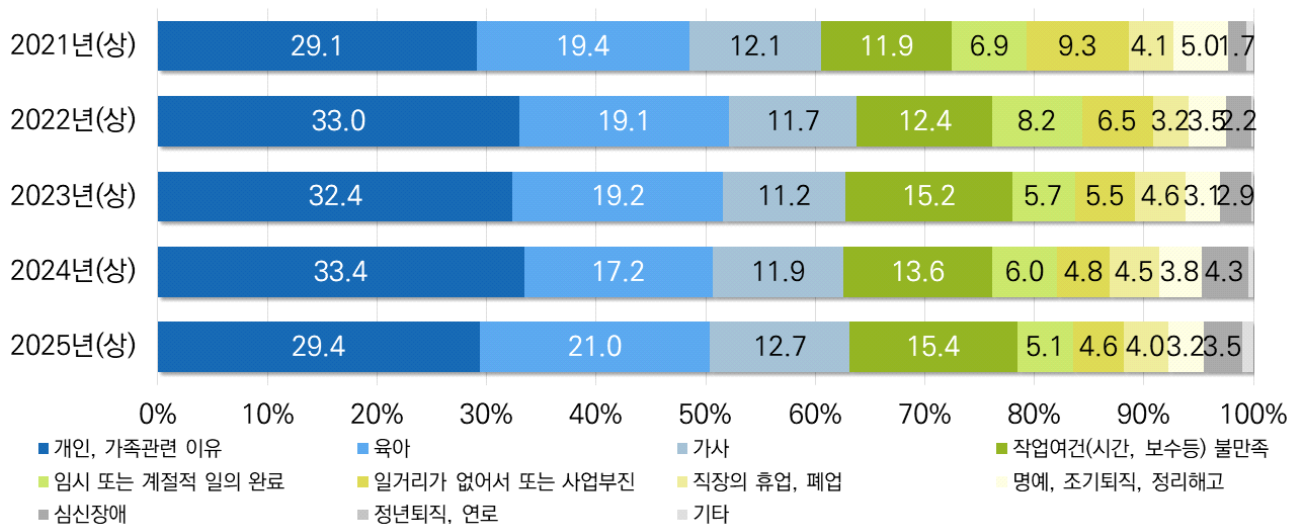
3-1 경기도 40대 퇴직사유 비중

'25년(상), 경기도 40대 퇴직사유 중 '개인, 가족관련 이유'가 29.4%로 최고

- (현황) '25년(상) 기준, 경기도 40대 퇴직사유 중 '개인, 가족관련 이유'가 29.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육아'(21.0%),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15.4%) 순.
- (추이)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은 '21년(상) 11.9%에서 '25(상) 15.4%로 3.5%p 상승했고, 반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와 같은 경기적 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은 감소하여 안정화.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처 / 단위: %)

경기도 40대 퇴직사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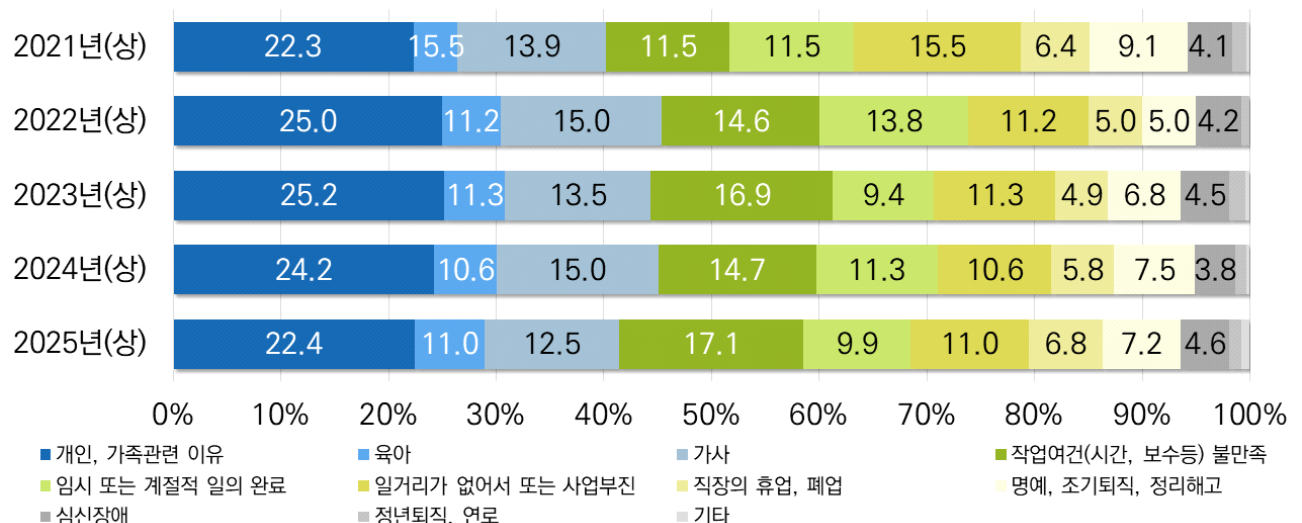
3-2 경기도 50대 퇴직사유 비중

'21년(상) 대비 '25년(상) 경기도 50대 퇴직사유 중 '작업여건 불만족'이 최대폭 증가

- (현황) '25년(상) 기준, 경기도 50대 퇴직사유 중 '개인, 가족관련 이유'가 22.4%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17.1%), '가사'(12.5%) 순.
- (추이)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은 '21년(상) 11.5%에서 '25년(상) 17.1%로 5.6%p 상승하며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반면,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는 감소하여 안정화.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처 / 단위: %)

경기도 50대 퇴직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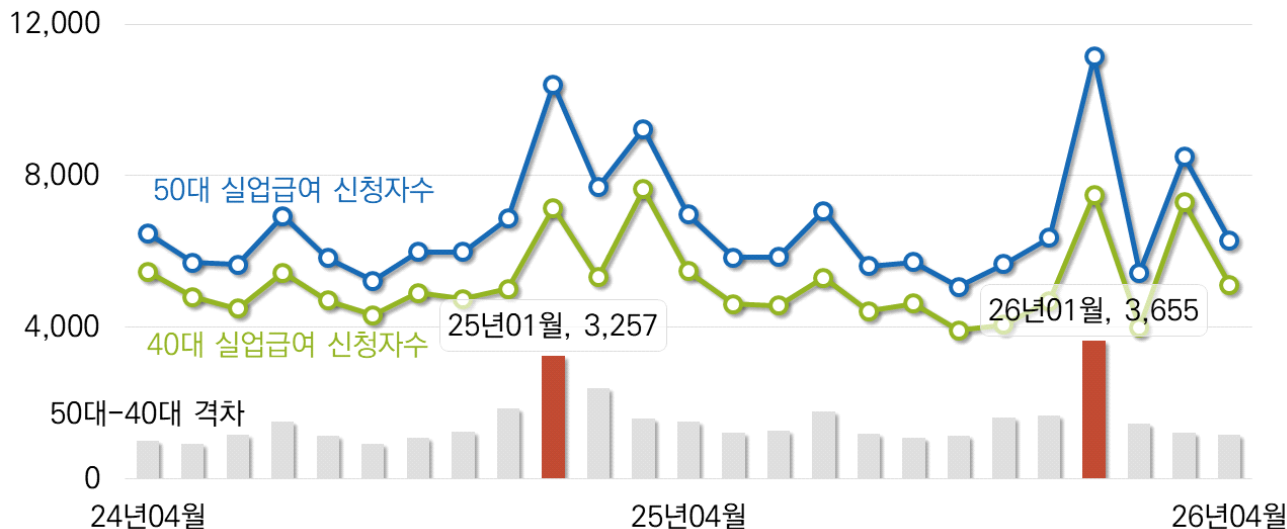
4-1 경기도 4050세대 실업급여 신청자수

경기도 50대의 실업급여 신청자수 상시 우위 및 매년 1월 격차 극대화

- (현황) '26년 4월, 경기도 4050세대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11,413명이고, 40대는 5,122명이며, 50대는 6,291명임.
- (추이) '24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40대와 50대 두 세대의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완벽히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며, 매년 1월 폭발적 증가 후 2월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현황) / 단위: 명)

경기도 4050세대 실업급여 신청자수



(시사점) 50대와 40대 실업급여 신청자 수의 격차 추이를 보면, 4~11월에는 1,000명 안팎의 박스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나, 매년 1월 진입 시 격차가 3,000명 이상으로 수직 상승하는 변동을 보임. 이러한 격차의 극대화는 상대적으로 50대 장년층이 40대에 비해 연말·연초 계약 종료 충격이 큰 단기 계약성 일자리에 더 많이 포진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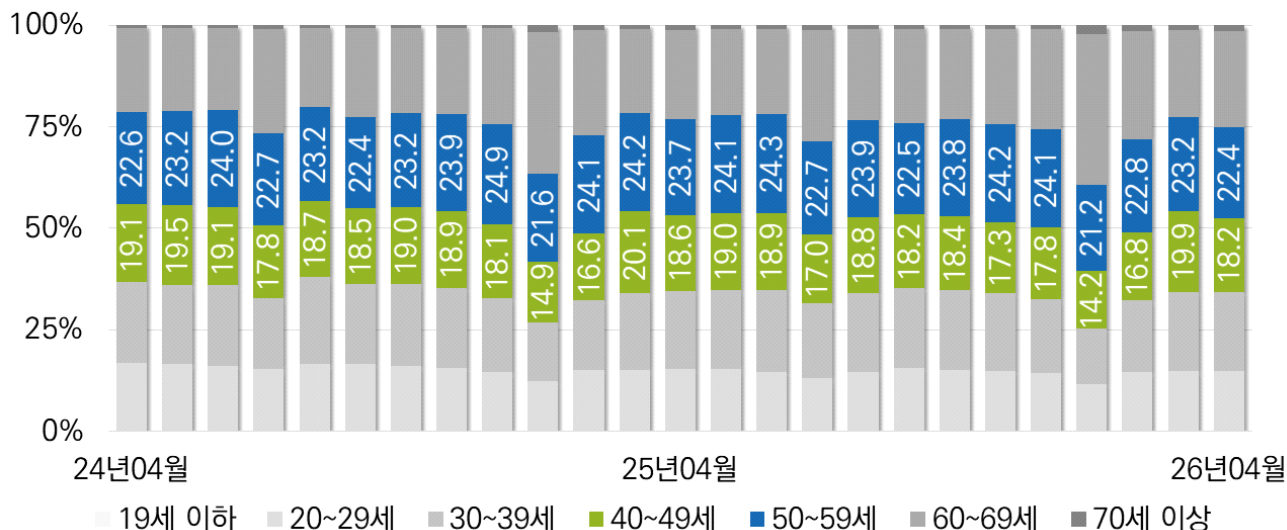
4-2 경기도 4050세대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

'24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 경기도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중 4050세대 비중의 평균은 41.5%

- (현황) '26년 4월, 전체 경기도 실업급여 신청자 중 40대는 18.2%, 50대는 22.4%를 차지.
- (추이) 분석기간 중 매년 1월 60~69세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4050세대 비중이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패턴이 관측됨.

(출처: 「지역별고용조사(MDIS)」, 국가데이터터 / 단위: %)

연령별 경기도 4050세대 실업급여 신청자 비중



IV

경기도 4050세대 노동시장



1

구직건수·취업건수

2

직종별 구직건수

3

선호하는 직종의 구인배수

4

직종별 취업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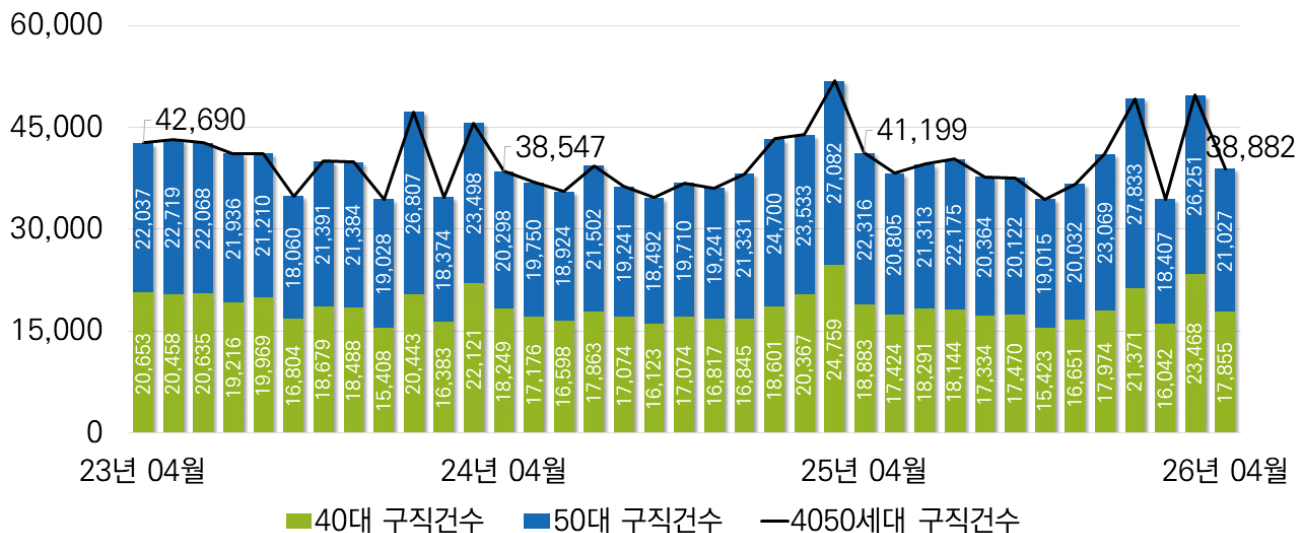
1-1 경기도 4050세대 구직건수

'26년 4월, 경기도 40대 구직건수는 17,855건, 50대 구직건수는 21,027건

○ (추이) 매년 연초 또는 상반기 채용이 시작되는 시점에 구직건수가 급증했다가, 연말에 급감하는 계절적 패턴이 반복.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건)

경기도 4050세대 구직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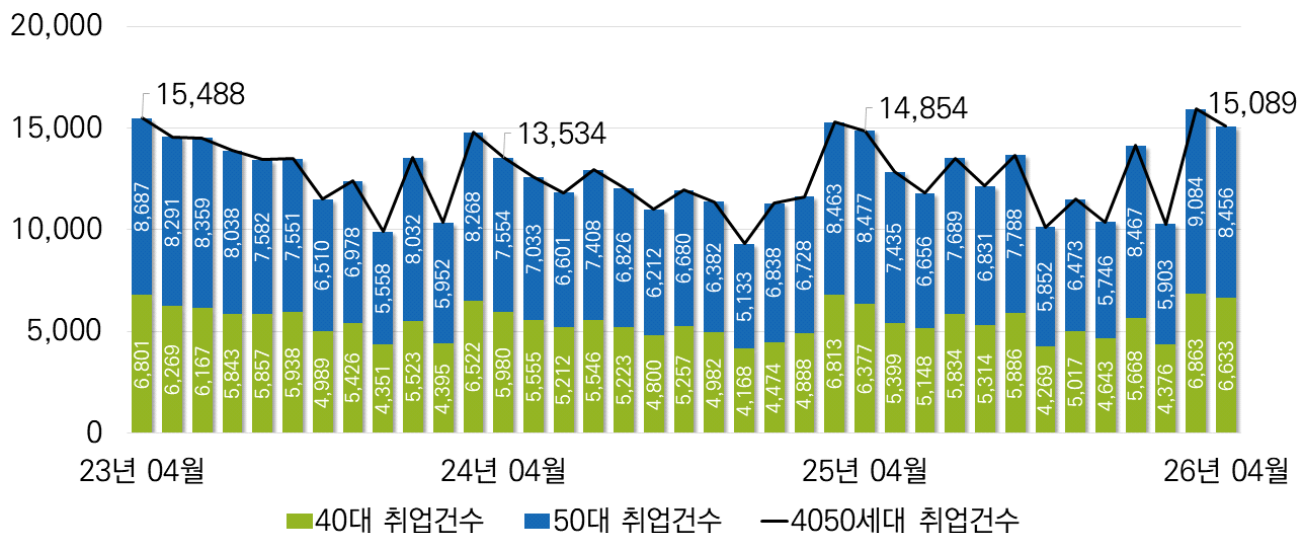
1-2 경기도 4050세대 취업건수

'26년 4월, 경기도 40대 취업건수는 6,633건, 50대 취업건수는 8,456건

○ (추이) 매년 12월에 취업건수가 감소했다가 이듬해 1분기에 반등하는 계절적 패턴이 나타남.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건)

경기도 4050세대 취업건수



☞ (시사점) 구직건수와 취업건수 모두 50대가 40대보다 많음. 또한, 구직건수 대비 취업건수 비율로 환산하더라도 시계열 전반적으로 50대가 40대를 상회함. 이는 50대가 40대보다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 자체가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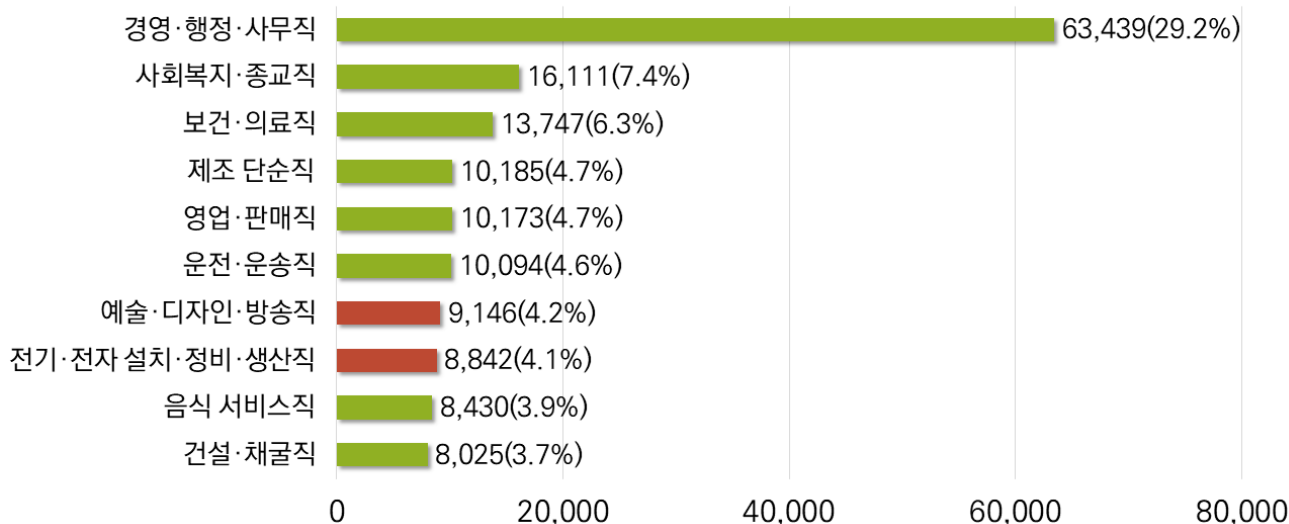
2-1 직종중분류별 경기도 40대 구직건수(Top10)

최근 1년, 직종중분류별 경기도 40대 구직건수는 '경영·행정·사무직'이 63,439건(29.2%)으로 최고

- (현황)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경기도 40대 구직건수를 직종중분류별로 살펴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이 63,439건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16,111건), '보건·의료직'(13,747건) 순.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건)

직종중분류별 경기도 40대 구직건수(To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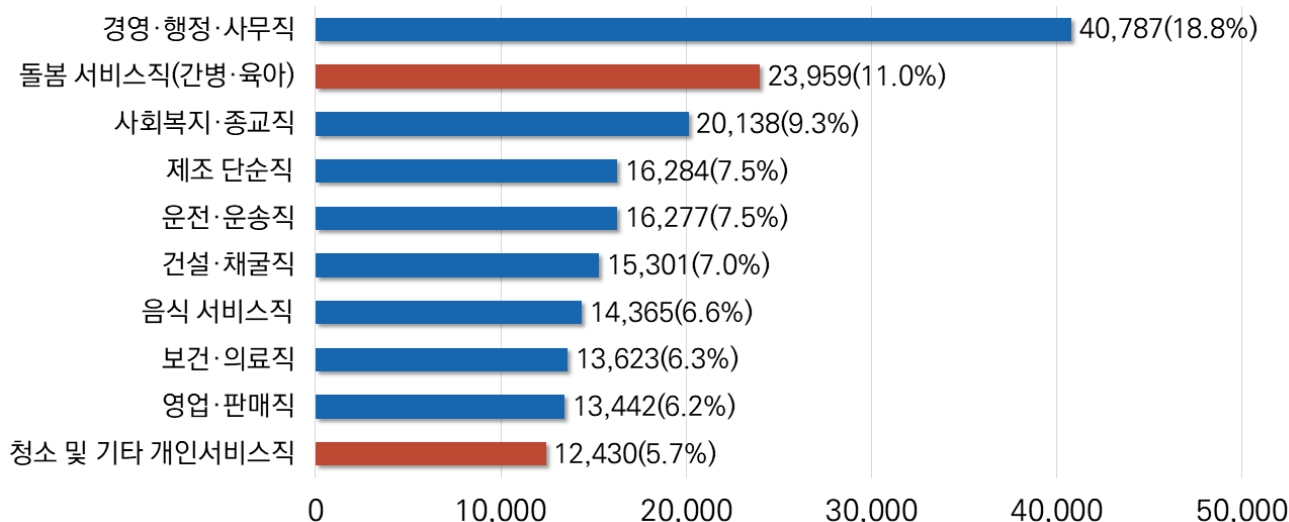
2-2 직종중분류별 경기도 50대 구직건수(Top10)

최근 1년, 직종중분류별 경기도 50대 구직건수는 '경영·행정·사무직'이 40,787건(18.8%)으로 최고

- (현황)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경기도 50대 구직건수를 직종중분류별로 살펴보면, '경영·행정·사무직'이 40,787건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23,959건), '사회복지·종교직'(20,138건) 순.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건)

직종중분류별 경기도 50대 구직건수(To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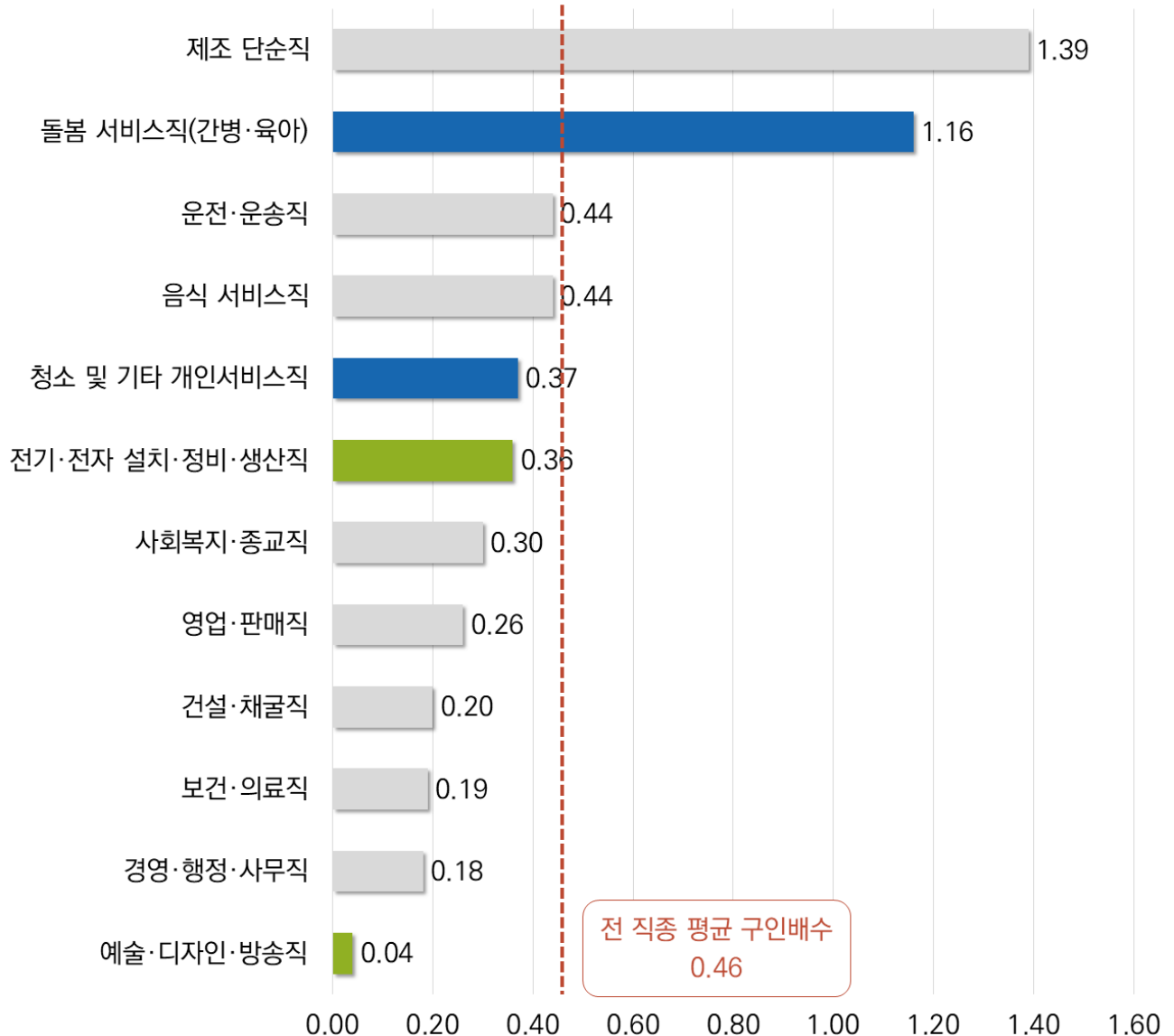
☞ (시사점) 경기도의 40대와 50대 모두 '경영·행정·사무직'이 전체 직종 중 구직건수가 가장 많다는 공통점을 보이나, 구체적인 비중에는 차이가 있음. 이는 40대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화이트칼라 경력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반면, 50대는 주된 일자리 이탈 후 현실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대안 직종으로의 전환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됨. 특히 경기도 40대 구직건수 Top 10에 포함했던 '예술·디자인·방송직'과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은 50대 구직 시장에서 제외된 반면,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과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은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함. 이는 50대 장년층이 해당 직종을 실현 가능한 대안 일자리로 수용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함.

‘제조 단순직’과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의 구인배수만 전 직종 평균 구인배수보다 높음

○ (현황)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경기도 4050세대가 선호하는 직종의 구인배수를 살펴보면, 전체 직종 평균 구인배수인 0.46보다 큰 직종은 단 2개(‘제조 단순직’,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에 불과함.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지수)

경기도 4050세대가 선호하는 직종의 구인배수('25.5.~'26.4.)



☞ (사시점) 경기도 40대 구직 수요의 29.2%가 밀집한 ‘경영·행정·사무직’의 구인배수가 0.18이라는 사실은, 해당 직종에 진입하려는 40대 구직자 10명 중 8명(82%) 이상이 구조적으로 취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드러냄. 이들이 기존 경력을 고수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극도로 부족한 실정임. 반면, 50대가 대안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은 구인배수가 1.16으로 명백한 인력난 상태임.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 직종의 구인배수가 높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만성적 빈 일자리 현상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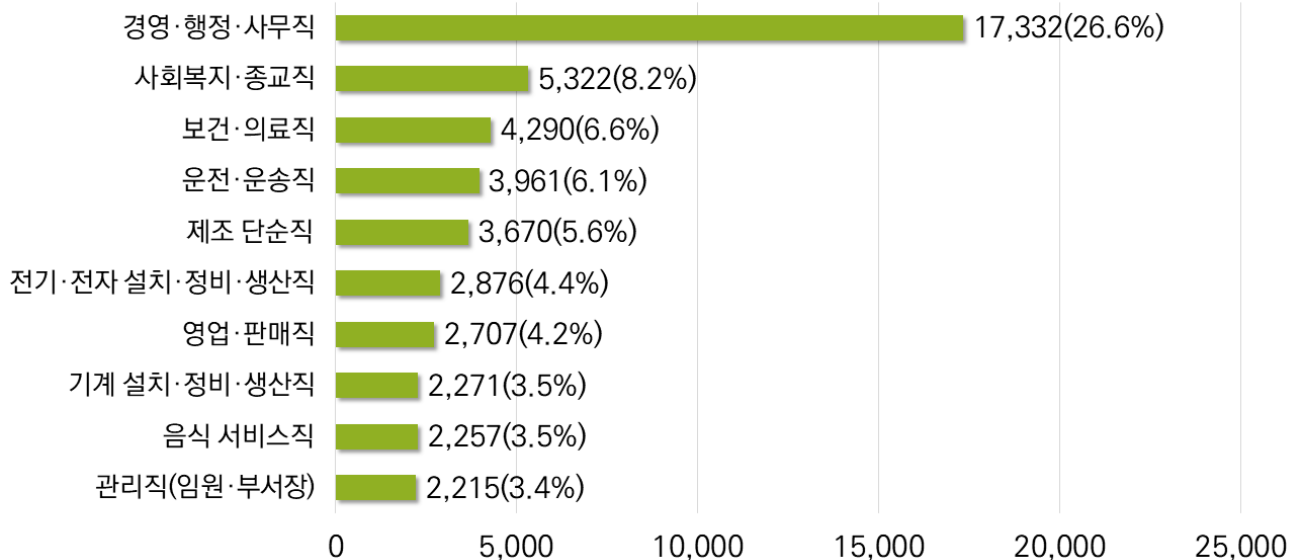
4-1 직종별 경기도 40대 취업건수(Top10)

최근 1년간 직종별 경기도 40대 취업건수는 '경영·행정·사무직'이 17,332건(26.6%)으로 최고

○ (현황)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직종별 경기도 40대 취업건수는 '경영·행정·사무직'이 17,3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직'(5,322건), '보건·의료직'(4,290건) 순.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건)

직종별 경기도 40대 취업건수 Top10('25.5.~'26.4.)



☞ (시사점) 취업 문턱이 가장 좁고 치열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40대 취업건수는 '경영·행정·사무직'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40대 구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한정된 사무직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경력 고수 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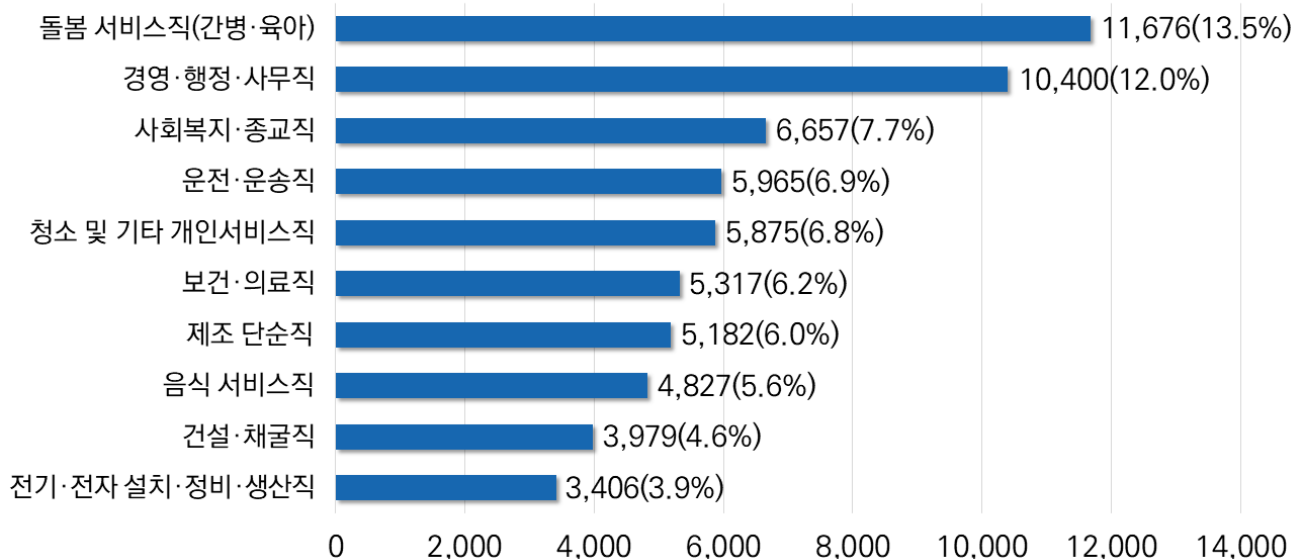
4-2 직종별 경기도 50대 취업건수(Top10)

최근 1년간 직종중분류별 경기도 50대 취업건수 '돌봄 서비스직'과 '경영·행정·사무직'이 양대 축

○ (현황)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직종별 경기도 50대 취업건수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이 11,67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영·행정·사무직'(10,400건), '사회복지·종교직'(6,657건) 순.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건)

직종별 경기도 50세대 취업건수 Top10('25.5.~'26.4.)



경기도 50대는 '돌봄 서비스직' 우위, 경기도 40대는 '경영·행정·사무직' 우위

○ (현황) '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경기도 40대와 50대의 직종별 취업비중 격차(50대-40대)를 살펴보면, 경기도 50대는 40대 대비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에서 10.6%p 취업비중 우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5.3%p), '음식 서비스직'(2.1%p)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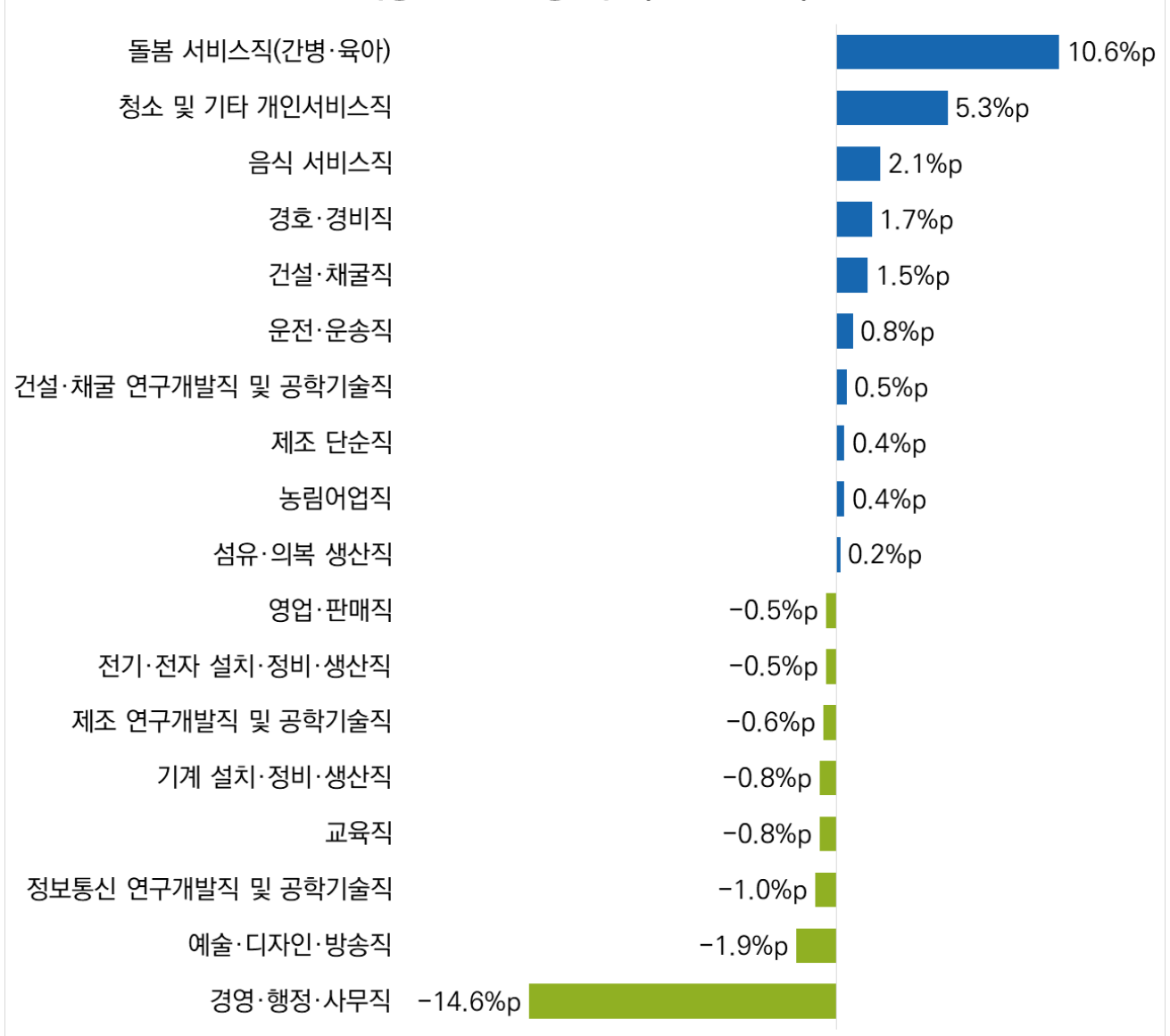
반면, 경기도 40대는 50대 대비 '경영·행정·사무직'에서 14.6%p의 취업 우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예술·디자인·방송직'(1.9%p),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1.0%p)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직종 중 50대 우위 직종 10개, 40대 우위 직종 10개만 발췌

※ '25년 4월부터 '26년 4월까지(12개월) 직종별 취업건수를 합하여 전체 직종 중 특정 직종의 비중을 산출

(출처: EIS 고용행정통계(고용노동부, 구인구직취업현황) / 단위: %)

직종별 취업비중 격차(50대-40대)



☞ (사시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일자리 사업이 '4050세대'로 묶여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표상 40대와 50대의 주력 일자리는 명확한 구조적 차이를 보임. 40대는 기존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한 사무직, 전문 기술직,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50대는 퇴직 후 대면 돌봄, 청소, 음식 등 기초 서비스 및 단순 노무 직종으로 고용 축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음식 서비스직' 등의 취업비중 우위는 단기 계약성 고용 및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로 인해 입·퇴사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회전문 고용' 구조가 만들어낸 착시 총량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표 해석 시 이에 유의해야 함.

2026

05월

월간 일자리 통계

